

밀/착/취/재

해외연수생 도입 농장을 찾아... ① 진왕중축

우즈베키스탄 해외 농업연수생 고용 양돈장

취재 : 안혜성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 1개월

정부가 지난해 7월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농·축산업에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 지난 8월 초부터 양돈장에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배정됐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으로 일선 양돈 농가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 외국인 농업연수생 243명이 양돈농가에 처음 배정된 이후, 현재 500여명의 우즈베키스탄인 농업연수생이 배정되어 양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수생 도입 후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앞으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진왕중축 이병모 사장과 후르카트, 마흐디아

충남 천안 소재 진왕중축 GP농장은 모돈 2500두 규모의 종돈장으로 이번에 배정받은 외국인 농업연수생 후르카트와 마흐디아를 포함해 총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농장내 기숙시설에서 농장 동료 11명과 같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현재 후르카트와 마흐디아는 각각 제2농장과 제3농장 분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분뇨청소, 급이기 청소 및 모돈 급수 업무 등을 맡아 하고 있다.

이병모 사장은 이들 농업연수생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현장 동료들도 이들을 배려해 본인들은 일과 후 잔업을 업무시간이외에도 하는 반면, 아직 적응이 안된 연수생들은 업무시간은 엄수해 주는 등 작은 일

하나에서도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현재는 농장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마무리도 같이 하는 등 점차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다.

■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을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이병모 사장

이 사장은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의 농장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식구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양돈장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이들이 잘 적응하여 양돈장의 한 식구로 정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한다.

■ 연수생의 고용비는 경력직 내국인의 50%선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의 월급은 1년 연수생 신분인 지금은 65만원 선이다. 이 금액은 국내 최저 임금인 52만원을 보장하고, 저임금으로 인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농장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이들 월급에 연수관리비, 숙식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1인당 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드는 비용은 숙련된 경력자의 50%에 해당한다고 한다. 1년 연수생 신분이 끝나고 고용할 경우에는 농장주와 농업연수생과의 협의하에 고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의 이들의 임금은 경력자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양돈인으로 숙련되려면 6개월 정도의 연수가 필요하다.

현재 농업연수생 신분인 이들의 임금이 내국인 경력자의 50% 수준으로 고용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숙련도 및 적응력도 내국인 경력자의 5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후르카트와 마흐디아는 분만사에서 분뇨 청소 등 단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분만시 자돈을 받는다거나, 자돈의 단미 작업, 건치 작업, 철분 주사 등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연수생 도입 후 6개월간은 적응 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6개월 이후부터는 업무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후르카트(우), 마흐디아(좌)가 자돈을 돌보고 있다.

■ 외국인 연수생의 애로 사항

• 언어 소통의 애로 점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도입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영어조차 연수생들이 몰라 언어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는 연수생을 인수할 때 받은 한국어/러시아어 단어집을 이용해서 '식사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담배' 등의 일상적인 대화는 조금씩 하고 있으며, 업무 지시 등은 거의 손짓, 몸짓을 통한 '바디 랭귀지'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농업연수생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들 연수생들은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녁시간을 이용해 동료들로부터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한국 말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등 한국 적응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엿보였다.

• 문화적인 차이(이슬람교)

후르카트와 마흐디아가 한국에 외국인 농

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양돈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바로 종교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이들 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돼지를 신성시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들 들은 식당에서 처음에는 돼지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돼지고기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음식이 돼지고기인줄 나중에 알고 다음부터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음식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흐디아, 한국 음식이 입에 맞고 식성이 좋은 후르카트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한국 음식을 잘 먹는 편인데 비해 마흐디아는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아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등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동료들은 이런 마흐디아를 배려해서 계란 요리와 닭고기 등을 구입해 주기도 한다고.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러시아 방송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한다.

■ 향후 외국인 농업연수생 개선 방안 제안

1. 외국인과 동포를 같이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

진왕중축 이병모 사장은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 우선 외국인 농업연수생과 해외 동포를 같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명을 고용하는 농장은 어렵겠지만 여러명을 고용하는 농장에서는 외국인과 해외 동포를 같이 배정해서 업무에 빨리 숙달되고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해외 진출 국가에서 연수생 선발

이 사장은 국내 양돈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으로 사업장을 진출하는 농가가 속속 생기는 상황에서 진출할 국가의 인력을 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진출국 출신의 고용인을 한국에서 업무 숙련해서 현지에서도 같이 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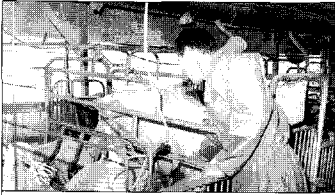
3. 축산전공 학교와 연계한 송출 방안

양돈장에서 원하는 인력은 축산을 전공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장은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와 연계한 송출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국내 양돈장에서 필요로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 향후 농업연수생 활용 방안

이병모 사장은 향후 농업연수생의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저돈가 시대에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숙련시켜서 향후 내국인과 농업연수생의 비율을 50:50 정도로 배치함으로써 비용감소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돈**



밀/착/취/재

해외연수생 도입 농장을 찾아 ... ② 서해농장

우즈베키스탄 해외 농업연수생 고용 양돈장

취재 : 안혜성

우즈베키스탄 개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 구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중 하나이다. 국가 총 면적은 44만7400km², 인구 2515만5000명, 1인당 국민 총 생산은 720달러로 우리 나라의 1/100에 해당한다.

1992년 2월 대통령중심의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으나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남아 있어 토지와 물에 대한 국유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생산량 및 분배, 수출입 등의 결정을 정부가 통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이며 성격은 온순하며 체력이 강한 반면 행동이 느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서해농장 이정학 사장과 샤샤, 반지, 바흐리

이정학 사장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서 모돈 550두 규모의 서해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종돈장인 제1농장에는 반지와 샤샤가 근무하고 있고, 자돈사와 비육돈사가 있는 제2농장에는 바흐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농장내 기숙시설에서 숙식하고 있다.

제1농장의 샤샤와 반지는 각각 분만사와 번식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샤샤는 분만사에서 분뇨청소, 분만 보조 등 단순 업무를 맡아 하고 있으며, 반지도 번식사에서 근무하면서 모돈 이동, 분뇨 청소 및 인공수정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제2농장의 바흐리도 비육사에서 근무하면서 돼지 돈사간 이동, 출하보조, 분뇨청

소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 농업연수생 대우를 잘해야 양돈 인력 문제 해결 될 것

서해농장 이정학 사장은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이 양돈장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한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또 주변 양돈장에서 벌써 도주한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있다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통해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 사진 좌측부터 서해농장 박철우 수의사, 샤샤, 반지, 서해농장 이정학 사장이 농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농업연수생들, 연수생 신분일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은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양돈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농업연수생들은 이러한 혜택이 어떤 것인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안타까워했다.

주변 양돈장에서 도주한 연수생의 경우도 그들이 본국에서 농업연수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불 비용을 빠른 시일에 충당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데만 급급해서 도주했을 것이라고 이 사장은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입국한 주변인들이나 브로커들에 의해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도주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덕 업주를 만날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 서로의 언어를 공부해서 문화 차이를 극복한다

서해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생들도 진왕중축의 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어만 사용하고 영어는 전혀 하지 못한다.

서해농장 직원들은 이들을 배려해 러시아어 사전을 끼고 의사소통을 거의 러시아어로 한다고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양돈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한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다른 농장보다는 언어 소통이 그나마 되는 편이라고 한다.

이정학 사장은 한국 직원이 러시아어를 배워서 의사 소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 농업연수생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샤샤, 반지, 바흐라는 아침에 농장에 출근해 돈사 카세트를 이용해 이슬람 종교 음악을 듣곤 한다. 한국 직원은 처음에는 음악이 낯설었으나 이제는 이슬람 종교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이렇게 서해농장은 외국인 농업연수생과 교감을 통해 그들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다.

이곳 농업연수생은 진왕중축의 후르카트와 마흐디아와는 다르게 서해농장의 3명의 농업연수생중 1명만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2명은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먹고 있어서 식사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한다.

■ 농업연수생 도입의 개선 방안

서해농장 이정학 사장은 양돈분야를 포함해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수요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수생을 3명을 신청했으나 1명

한국 직원이 러시아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 농업연수생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도 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의외로 연수생을 지원한 농가가 그리 많지 않아 3명이 다 배정되었다고 기뻐하면서도 중소 규모의 양돈장에서 농업연수생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중도에 포기한 농가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숙소의 사진을 준비하는 등 많은 절차가 있어서 중소규모 농가의 신청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반지(맨왼쪽)와 사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모돈과 자돈을 돌보고 있다.

■ 양돈장 인력을 보내고 바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 있어

서해농장 이정학 사장은 일부 소규모 양돈장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과 동시에 기존의 농장 직원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

다. 농업연수생의 경력 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농장 직원을 내보내고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연수 기간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서해농장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양돈장 업무에 익숙해지는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돈**

• 2003년 9월 20일 현재 외국인 농업연수생 입국 총계

연수업체기준(179농가 498명)

구분	시설원예		시설버섯		미나리		젓 소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사슴		합계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농가수	연수생
강원	3	14	1	2			1	1	3	10	7	26							15	53
경기	33	88	7	23			11	17			19	64			10	38			80	230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6	17					3	3			14	23							23	43
충남	3	14	2	5			6	14	1	2	32	85			5	18			49	138
충북							2	2	2	7	6	20	1	3	1	2			12	34
합계	45	133	10	30			23	37	6	19	78	218	1	3	16	58			179	498

<자료 : 농협 외국인 농업연수협력단>